

60호**“단 한명의 구조조정도 용납할 수 없다!!”****■ 구조조정 분쇄**

쟁대위 속보

■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2009.11.12(목)**

|| 발행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발행인 박노균 || 전화 02-3456-8157 || FAX 02-3456-8159 || E-mail baljeon@baljeon.nodong.net

명분과 구실 잃은 회사, 이성 상실

다양한 파업전술로 힘있는 교섭력을 확보하고 승리를 쟁취하자!

파업 돌입 직전까지 으름장을 놓았던 사측이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6일 낮에 전화와 문자로 조합원들에게 17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너스레를 떨던 사측간부들의 말은 공같이였음이 입증되었다. 노동조합의 장담이 옳았고, 사측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기껏 사측이 해놓은 것이라곤 공투본 파업출정식이 끝나던 시간에 중앙쟁대위원 14명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발전노조가 사측을 무고와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니 사측은 제 무덤 제가 판 꼴이다.

동서발전에 “회사 답변은 내부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회사내 별도 부서가 아닌 대표자에게 교섭 개최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한다. 재차 단체교섭 개최를 요청한다. 11월 13일(금)에 교섭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노무주관사 사장이 내부적인 업무절차를 핑계대며, 자신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파업과 교섭요구가 사측을 얼마나 당황하게 하는가를 입증한다. 그들에게는 파업을 탄압할 명분도 없고, 교섭을 회피할 구실도 없다. 그러니 꼬박 하루 이상을 고민한 끝에 작성한 공문이 그 모양이다.

우리가 필수유지업무 전술을 운용하는 한, 저들은 더 이상 함부로 법을 악용할 수 없다. 유리한 고지는 발전노동자가 차지했다. 지금 이 순간 발전노동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동지에 대한 믿음이며, 중앙쟁대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치밀하고 지혜로운 투쟁전술이다. 지속적인 교섭요구와 다양한 형태의 파업투쟁으로 사측과 정부를 압박하자! 중앙쟁대위를 중심으로 6,800 조합원이 일사분란하게 행동한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중앙쟁대위는 11월 7일, 9일 이틀간의 논의 속에서 향후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장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이번주는 교섭에 집중하기로 했다. 쟁대위는 11월 9일(월) 노무주관사인 동서발전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함과 아울러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은 11월 10일(화) 퇴근시간 무렵 어이없게도 “노사업무본부가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노사업무본부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노동조합은 11월 11일(수) 다시

발전해복투 동지들이 11월 9일(월) 영흥 화력지부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현장순회에 나섰습니다. 발전노조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선봉에서 투쟁해 온 해고자들은 민주노조의 건설과 사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해고자들을 만나면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합시다!

임·단협 승리! 구조조정 분쇄! 인력충원 쟁취! 성과경쟁 분쇄! 전력산업 통합!

조합원 자리 빼앗아 회사 간부 자리 늘리겠다?

**태안화력 교대근무 부장 3명, 과장 8명 중원
조합원 8명 감원,**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하는 상황에도, 사측은 구조 조정의 칼날을 갈고 있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교대근무 시범운영>이라는 교대근무 구조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안 1·4호기 교대근무 부장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태안 1~2호기 제어실 BTG1, BTG2를 4직급화 하여, 1·2호기 과장을 4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교대근무인원이 너무 많다’는 평소 사측의 기조에 따라 조합원 영역을 감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 영역에 대해서는 집중된 정원감축과 이에 맞추기 위해 강제적인 인력감축-조직 축소·개악을 단행하면서, 조합원의 자리를 빼앗아 오버티오로 있는 회사간부들을 자리를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다.

감원, 서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강제적 인력감축은 서부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발전회사가 올해초 정원감축 결의 이후 1,570명

정원 감축에 맞추기 위한 조직개편(개악)을 준비, 발표하고 있다. 교대근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사업에 대한 강제 전환배치, 과(科)단위 조직 폐지와 팀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족인원으로 허덕이는 현장에서 감원은 발전소를 멈추라는 말과 다름없다. 또 조합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발전노동자 한명 한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전체 발전노동자의 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굳건한 단결로 조합원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조직개편, 개악을 반드시 분쇄하자!



남부, 남동, 서부발전 ERP 핵심사용자 교육 강행

남부, 남동, 서부발전이 ERP시스템 구축을 강행하고 있다. ERP는 실시간으로 실적 평가와 상시적인 감시 통제 장비라는 점에서 노동자에겐 조기퇴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즉 ERP 구축은 노동과정의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의 수반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사측에 특별단체교섭 등 끊임없이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특별교섭도 거부하고, ERP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기야 남동, 남부, 서부발전은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 핵심사용자를 선

정하고,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사 핵심사용자 교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남동, 남부, 서부발전본부는 중앙쟁대위의 간부파업 일정 속에서 노조 간부 중심으로 ERP 구축 강행을 규탄하면서 핵심사용자 교육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RP는 구조조정 중에서 성과경쟁프로그램의 핵심 시스템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조합원이 단결하여 ERP 시스템 구축 반대 현장투쟁에 나서자!

◆ 11월 11일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도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가스공사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우선 각 지회별 현장 규탄대회를 통해 투쟁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11월 18일 전후로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파업 사수하고 사측의 탄압 응징하여 민주노조 사수하자!